

● 부활제 4주일

성소주일

“신부님! 신부님은 어떤 계기로 신부가 되려고 결심하셨나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때마다 저는 “「천국의 열쇠」(A.J.크로닌)를 읽고 신부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하고 답하곤 합니다.

첫 영성체조차도 재수를 하면서(정신없이 놀다가 예식시간을 놓쳐 다음해에야 첫 영성체를 받았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제게 우연치 않게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읽었던 「천국의 열쇠」는 사제의 꿈을 시작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지요. 소신학교(신학교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프란치스 치섬 신부와 같은 사제 상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구체적으로 사제 상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프란치스 치섬은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양친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는 불우한 소년기를 거치면서도 깨끗한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실연의 아픔을 겪은 후 사제의 길로 들어서지만, 사제가 된 후에도 자유분방한 성격과 신자들과의 격의 없는 관계로 완고한 주임신부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의 장점을 잘 아는 교장신부 권유로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지요.

두료 진료소를 여는 것으로 시작해, 페스트가 마을을 덮쳤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사람들을 구하고, 내전과 기근에는 지혜와 용기로 대처하던 치섬 신부는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따뜻하게 보살피고, 어렵게 지은 성당이 홍수로 인해 폐허로 변했을 때도, ‘다 없어져버린 것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 인생’이라며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치섬 신부와 한 고향 출신이며 신학교 동창생인 안셀모 밀리는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 천부적 사교수완을 발휘해 교회 내에서 출세를 거듭합니다. 중국에 간 이후 단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치섬 신부에게 밀리의 주교 임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패배자라도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세상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향 본당신부로 돌아온 치섬 신부는 신자들에게서 경외심에 이르는 애정을 받지만, 밀리 주교에게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여져 주교의 비서인 슬리스 신부에 의해 행적을 조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섬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평판을 하느님께 맡기겠소.”

「천국의 열쇠」가 계기가 돼 신부될 꿈을 꾸게 됐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자매가 단숨에 책을 읽고 와서는 “신부님! 신부님은 치섬 신부보다는 안셀모 밀리 신부 같아요!”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본당 신부로서 살다보면 어떤 때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는 행정적인 것에 더 치우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신부의 삶이 신자들 생각처럼 기도와 신자들을 만나는 거룩한 것으로만 짜여진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일이 사랑의 실천보다 우선이 아님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란? 하느님의 부르심을 말하며 특별히 사제직에로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시대에 사제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제의 삶은 가난, 순명, 정결의 삶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고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뿔혀 하느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믿음을 절실히 필요

로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제가 있어야 성소자들이 끊이지 않고 대를 잇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것이 신부 혼자의 힘만으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믿음 속에 사제는 성화되고 그 사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될 때 성소의 작은 움트고 자라납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 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좋은 유산

지금 생각해보면 삶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다른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진정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좋은 나쁜든 우리가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란다. 훌륭한 삶의 구성요소란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 세상을 조금씩 바뀌는 일... 그 무엇보다 멋있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해 볼만한 일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재능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상에 '좋은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 좋은 유산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은 조금씩 아름답게 바뀌어 갑니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주님 부활 감사 기도

이날은 한 거룩한 거부실망없는강그어흥생하더만백이더죄악사랑이죽음이이보다수여언제나주님의승리의죽음을예수여성부와영원히

주님의광명주님세상의사람에게서홍공포인죄인복천사의저지른사람이놀라고두렵고새로운더귀한일변함없는총아래이기고크신영광위로자신

날로죄에민지사하있고말려보워주시고애써주신비롭도다찾아헤매고풀어없애주시니있으랴아름속깊이

참관세사를힘을써니남아있을라니늘라워하네

날이다

이날은 한 거룩한 거부실망없는강그어흥생하더만백이더죄악사랑이죽음이이보다수여언제나주님의승리의죽음을예수여성부와영원히

주님의광명주님세상의사람에게서홍공포인죄인복천사의저지른사람이놀라고두렵고새로운더귀한일변함없는총아래이기고크신영광위로자신

날로죄에민지사하있고말려보워주시고애써주신비롭도다찾아헤매고풀어없애주시니있으랴아름속깊이

참관세사를힘을써니남아있을라니늘라워하네

날이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오늘은 공소 예절로 진행합니다.

◎ 바느기도회 안내
▶16일 (수) 7:30 박순웅 형제 집

◎ 4월 구역모임
▶1구역: 4/13(일) 오후 7시, 허재표 형제집
▶2구역: 4/26(토) 오후 6시, 교육관
▶4구역: 4/25(금) 오후 6시, 하상호 형제집
▶5구역: 4/19(토) 오후 6시, 신상우 형제집
▶6구역: 4/19(토) 오후 7시, 남상욱 형제집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사회봉사 시간이 필요한 중고등부 학생은 이번에 교육관 청소 및 정리 등을 하여 충당 하세요

◎ 교육관/사제관에 필요한 비품 기부를 받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사제관/교육관에 필요한 비품 및 집기를 기부 받습니다. 물품, 현금 또는 캐나다안타이어 머니로도 가능합니다. 세금공제영수증을 발부하오니 금액을 명기 하세요
▶문의 : 이명희 관리부장
(B)519 894 3533 / H)896 9628/ C) 228 338 0679

◎ 라이프센타 축성식 안내
오는 4월 28일(월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성당에서 특별한 축복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밀턴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주교님 세분과 저희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과 많은 신부님들이 참석 하십니다. 특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가대가 한국어로 성가도 부를 예정입니다.
성가대의 힘찬 화음을 위해 관심있는 교우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연습 시간은 성가대장님께 문의 해주세요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공소 인터넷 클럽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교우님들을 위해 새로이 단장을 하였습니다. 가입문의는 서기 한택중에게 하세요
클럽주소: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 주간 전례
▶4 월 19일(토)낮12시, 부활제 4주간 토요일

◎평일미사시간 변경(5월부터 시행)
목요일 저녁 8시 미사⇒금요일 저녁8시 이동
5월 성시간부터 금요일 저녁 8시

◎세계 성체대회 신청
6월 쾌백에서 개최하는 세계성체대회 미 참석자 가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합니다.
추가인원: 5명

◎Youth Group 예비자교리
교리시작 : 3월 30일
신청 : 청소년 부장(이정길 테오�필로)
대상 : Gr 7 -Gr 12

◎예·찬·사(예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본당 행사와 친교를 목적으로 한 성인 찬미 그룹
예·찬·사에서 음악으로 주님께 찬미드릴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관악기/현악기/여성싱어/드럼
문의 : 행사부장(김한욱 에릭 형제님)

'인내'의 원칙
"나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나올 실수가 없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진다." 해법은 실수에서 배우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는 가장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는 자가 승리한다.
* 인생길에서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나 인내력을 발휘하여 끈기 있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여부는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매우 단 이치와 똑같은 거지요. 우리 모두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나서 힘찬 하루 열어 갔으면 합니다.

2008-15 2008. 4. 13. 부활 제 4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	-----	-------	-----

화 답 송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나는 내 양들을
알아보고 내 양들도 나를 알아보도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55) 착하신 목자
봉헌	(218) 주여 당신의 종이 여기에
성체	
퇴장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독서	
4 월 13일	김근효 김순희
4 월 20일	박재영 박경미
4 월 27일	한택중 한재희

봉헌	
4 월 13일	김용하 김희선
4 월 20일	김근효 김순희
4 월 27일	박재영 박경미

복사	
4 월 13일	수빈 지현
4 월 20일	원영 현재
4 월 27일	경은 규환

2008년 4월 6일 현금 내역	
주일헌금:	\$ 750.00
감사헌금:	\$ 300.00
교무금:	\$ 60.00
Total :	<u>\$ 1110.00</u>